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
기획총괄과

과장 심종섭, 서기관 심정환
(044-200-2048, 2049)

이낙연 총리, 4차 총리·부총리 협의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각 부처가 차분하고 질서있게 임하도록 주문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1일(화) 오전,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4차 총리·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
 - 오늘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, 김상곤 사회부총리, 송영무 국방부장관,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,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.
 - 또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전보다 30분 앞당겨 9시에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한 시간씩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오늘 회의에서는
 - 경제분야에서 △1/4분기 경제실적과 최근 경제동향 △재정 개혁특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△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방향을,
 - 사회분야에서는 △2018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△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△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후속조치 등을 점검했고,
 -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△남북정상회담 국방분야 후속조치 △성주사드 관련 개선공사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- 이낙연 총리는 지난 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모두가 기다리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었다면서,
 - 내각은 '판문점 선언'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차분하고 질서 있게 임하자고 강조하고, 5월에 한미정상회담, 북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

-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는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경제가 금년 1/4분기 1.1%의 성장을 이룬 것은 긍정적이나 3월 설비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 개선흐름에 변화가 있었던 점에 대해 경제팀이 예의주시하며 실효성 있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.
 - 또한,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역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, 국회 추경논의와 별도로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대책과 위기지역 지원에도 속도를 높여나가자고 말했습니다.
 -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만큼 중요한 것이 그 결과를 의미 있게 분석해 제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, 조만간 현안점검조정회의(총리 주재)에서 보완대책방안을 상정,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
 - 아울러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, 각 부처별로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파악한 후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이달 중 각 분야별 보완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시했습니다.

- 제5차 총리·부총리협의회는 5.15(화) 9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.